인류애 기반위의 과학기술

독자투고 과학기술운동의 의의와 전망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전쟁, 공해, 인간성파괴, 노동재해, 인간소외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열심히 연구한 과학의 성과가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음에 과학자의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 과학자만이 그 일의 본성과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지식의 남용이 사회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를 지적할 책임을 지닌다. 15C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잠수함이 무기로 쓰이게 될 것을 예상하여 설계도를 발표하지 않았고, 17C 모일은 같은 이유로 그가 개발한 독극물의 비밀을 지켰으며 원폭개발의 핵심인물이었던 레오실라드는 연구결과를 원폭제조에 이용한데 환멸을 느끼고 물리학계를 떠났다고 한다.

과학자, 이공계 과학도들은 '전리를 위한 신리' '그 이용자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과학지상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나 과학의 무책임한 이용과 그 부정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각성해야한다.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사회전체속에서 과학기술과의 관계를 밝혀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과의 관계를 밝혀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참모습과 올바른 과학도상을 모색해야 한다.

과학기술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세계에 대한 인식활동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작용하는 제법칙을 발견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 운동과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으며 새로운 지식을 체계화하는 활동이다. 과학이 자연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기술은 자연에 조작을 가하고 손으로 다루어 실제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인간의 행위능력으로 인간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학은 자연에 대한 사람의 관계로서 그 자체는 객관적이나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이고,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해 계급성이 나타나게 된다. 계급사회등 통틀어 과학기술은 항상 지배자의 소유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지배적 사상관념을 형성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과학기술을 이용하였다. 현대사회의 공해, 환경파괴, 산업재해의 본질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도한 탓도 아니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인 과학기술이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높이는데 이용되는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풍요롭게 과학기술의 성과가 돌아가지 않고 극소수에게 집중된다.

정론적으로 과학과 과학기술은 사회와의 연관성속에서 파악해야하고, 과학기술의 문제가 과학적 이론, 기술자체의 문제에 있다는 그릇된 관점들을 버리고 과학기술의 목적이 세계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초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자체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인 대규모성,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과학기술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전쟁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은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사를 보면 개량하는 기술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 정책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1970년대에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한국의 군 현대화를 통한 자국의 방위부담을 덜려는 미국의 이해가 작용했다—이 있었고 이것은 자국의 시장과 기술에 기반하지 않았기에 지속적인 기술도입만을 촉진했을 뿐이다.

1980년대에는 국제 경제구조 선정한 뒤 설문조사 방법으로 G7프로젝트의 과제를 결정한 것이다. 번개불에 콩튀기듯 무모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것보다 좀더 내실을 다지는 단계적·체계적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과학자와 과학기술운동

과학자는 노동자이다.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볼 때 연구주체의 선정, 수행과정에서 소외되고 그 결과의 이용에 있어서 왜곡된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노동자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상품의 자체보셔 연구 성과를 파는 것이다. 특수한 노동자인 과학자들이 올바른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첫째, 과학연구에 대한 충분한 자금이 주어져야 하고 둘째,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기술 개발에 이어지고 응용되어야 하며 세째, 기초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회의 필요를 고려해야 되며 네째, 과학자가 모든 단계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 과학노동은 이런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는 위축되고 기계적인 것이 되고만다.

과학기술의 본질,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해명과 전문기술직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과학기술의 올바른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는 2차대전 후, 우리나라의 경우 87년이후 등장한 과학기술운동이다. 물론 처음 제기된 과학기술운동은 단지 전문직식인에 의한 지식운동이 차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계급운동, 계층운동 사회변혁운동으로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공계 과학도들은 이후 과학기술 노동자로서 사회에 진출할 사람들이기에 과학이론의 탐구전에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의 목적이 사람에게 복무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복무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에 의한 사람의 소외, 주체성의 상실이 발생한다면 과학의 참뜻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전 지 선

〈문리대 화학·2〉

제178회 최 용 제

과학기술의 올바른 사회적용위해 제기
사회변혁운동으로 점진적 발전보여야

취재노트

본드에 환각된 마지막 잎새

◇… 진정한 '인권복지'란?

'인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鄕형이 '인복위'에 있다길래 노트子 알아보니.

그사람 참!. "너 이 XX자식", "너 죽인다!"는 입에도 담지 못할 망발을 서슴지 않고 부르짖는다고.

'인복위'라는 것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구인데 정작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단체가 이런 망발로 학생들에게 다가서면 어느누가 '인복위'라 부르리오.

◇… 깨끗한 밥, 좋~잖아!

"으악!"

서천골을 찌르는 듯한 비명소리에 노트子 부랴부랴 찾아간 곳은 공대식당이다.

"으악!" 죄송하오. 鄕형들, 노트子가 鄕형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구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본 노트子 역시 비명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오.

맛있게 먹던 김치속엔 방귀웃는 쥐며느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노트子 딱~ 한마디만…

밥다운 밥, 깨끗한 밥 먹고 싶사와~요.

◇… 통만두보다 못해서야 …

'○○○ 학술제'를 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노트子 더 배울수 있다는 부푼마음으로 만일을 모두 제치고 고해같은 길을 거슬러 갔더니,

보아노니 몇점의 전시물뿐, 정말 썰렁하더이다.

'학술제'란 이름은 거창하게 들리는데 통만두의 알찬속보다 못한것이 한심스럽소이다!

◇… 대한민국 선거가 고황골 선거와 다른점(?)

1. 여당은 기존의 동장, 반장을 선거 운동원으로 활용한다.

2. 유권자는 공약보다는 정파, 인맥, 출신 지역을 먼저 본다.

3.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모셔 가야 된다.

정녕 대한민국 선거풍토와 고황민국 선거풍토는 다르다고 노트子 부르짖고 싶구요.

◇… 서천골 학내서점의 물음

서점 : 鄕형! 鄕형! 나 서점 맞아요.

鄕형 : 그래, 넌 서점이야.

서점 : 鄕형! 나 정말 서점이예요.

鄕형 : 그래, 넌 정말 서점이야.

서점 :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있는 책보다 없는 책이 더 많고, 책 주문도 할 수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문명인은 있어도 컴맹인은 없을 정도로 보급된 컴퓨터의 진보적 사용자들이 각별히 경계해야 할 사건이 터졌다는데.

어느 컴퓨터 통신 동호회를 반국가단체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고, 동호회를 폐쇄시키고, 회원의 신상조사까지 한다니 보통 겁나는게 아니네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조차 못하게 하세요? 우리나라는 진정 말할 권리가 없는(?)민주주의 국가인지 노트子 의심스럽네요.

◇…중발(?)

서천골 교양과목 수업시간에 鄕형들이 증발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많은 수가 강의를 받는 것을 악용해 교수님의 눈을 피해 슬쩍 도망치는 鄕형들이 그 범인이라고.

鄕형들, 학교에 나오는 목적이 하룬 탈구에 있는지, 단지 출석을 하기 위함인지 노트子 사뭇 궁금하외다.

◇…마지막 잎새(?)

겨울이 찾아드 서천골의 마지막 잎새도 지려하는데.

누가 그려넣었는지 떨어지지 않는 잎새하나 채대 건물에 있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제대 기둥에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소자보더라.

원인인즉, 학교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인소자보가 떨어지는것을 가슴 아파한 鄕형의 마지막 몸부림 이라나?

鄕형들! 학교사랑을 학교건물 하나하나 소중히 하는 작은일부터 시작해 보시는게어떠 하시려지요?

교 내 단 신

선불회 겨울수련회

수원캠퍼스 불교동아리 '선불회'는 오는 12월 22일 부터 3일간 용인 대덕사(寺)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는다.

'스님들의 행환을 답습하여 자아를 수련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1박8번(하루에 10회 반복) 절하는 '백팔배'와 주지 스님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설법을 청취하며 출가한 불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선불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해인사 성철스님을 기리는 법회도 함께가질 예정이다.

소리빛 '첫걸음 수화제

오는 25일 오후 5시 30분 부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수화동아리 '소리빛'에서 주최하는 '첫걸음 수화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신인류의 사랑', '내일은 늦으리', '손가락 그림',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 4곡의 노래공연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간단한 슬라이드 상영을 한후 수화연극 '혈과 불가사리'를 공연하며, 마지막으로 김승국(단국대·특수교육)교수의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상황'이 강연될 예정이다.

이번 수화제의 취지는 수화공연의 형식을 빌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댓바람 '가을 정기공연'

서울캠퍼스 팬플룻 연주동아리 '댓바람'은 오는 25일 오후 5시 30분 크라운관에서 '제 7회 가을 정기공연'을 갖는다.

1부 '댓바람의 사계' 2부 '영화속으로', 3부 '팬파 어우러지며'로 나누어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라벨의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비발디의 '사계'중 '겨울', 서편제 영화음악중 '소맹길'등 15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생놀공' 겨울전시회

서울캠퍼스 민중미술 동아리 '생활놀이 미술 공동체'는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백에서 '제 9회 생놀공 겨울 전시회'을 개최한다.

총 14점의 판화가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건강한 미술문화 정착'이라는 기조 하에 삶속에서의 고민을 표현한 작품을 주로 한다.

한그림 가을전시회

서울캠퍼스 만화 창작 동아리 한그림의 가을 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학생회관 4층 열린공간 여백에서 있을 예정이다.

'따로 또 같이'란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문민정부'란 제목의 기획만평과 단편 만화, 일러스트 20여점이 전시되며 세번째로 발간되는 만화모음집도 선보인다.

KUSA 창립제

서울캠퍼스 한국 유네스코 학생회 연합(KUSA) 창립제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연극 '문명 교향악'과 '신 인류의 사랑'을 비롯한 노래공연과 '신세계'란 주제로 토론회도 가질 이날 행사는 졸업한 동문선배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화학과 '큰잔치 예술제'

문리대 화학과는 오는 27일 오후1시 크라운관에서 '화학인 큰잔치 예술제'를 연다.

이날 예술제는 연극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와 소리사랑의 노래공연, 1년간 화학과의 생활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화학 뉴스' 등의 행사를 비롯해 '비밀 전시회'도 함께 꾸며진다.

노래여울 11회정기공연

서울캠퍼스 동아리 '노래여울'은 12월 2일, 3일 오후 5시 30분과 4일 오후 3시에 학생회관 4층 여백에서 11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불감증 그리고 신세대'란 주제의 노래극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그루터기', '나이 서른에 우리'등의 노래와 함께 기타,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을 연주하며 이봉연(무용·2)양이 출연할 예정이다.

빛사냥 목요영화 감상회

수원캠퍼스 영화연구 동아리 '빛사냥'은 지난 18일부터 2주간 외대 한누리소극장에서 '목요 영화 감상회'를 갖는다.

이번 감상회는 지난 18일 1시 '우리들의 밀그레잔 영웅'상영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1시, 4시 '가슴에 돋은 칼로 슬픔을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세계 정상에 서는 법

조금씩 돋아난 혁신의 싹을 힘을 모아 키울 때 기업과 나라가 발전한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제, 혁신의 조그만 싹이

우리가 정말 혁신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여의 세월이 흐렀다. 그동안 내가 기대했던 주춧 만큼의 변화가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조그만 변화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조그만 변화가 앞으로 고객들에게는 크나큰 새로움으로, 회사 내부에는 활력과 창의를 촉발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혁신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기업을 혁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비전이 좋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경영을 통해 이룸 실현시키려면 조직이 혁신되어야 하고 기존 제도도 정비되어야 하고 사람도 길러져야 하며 조직 내에 전문적인 노하우도 쌓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들의 생각과 행동도 새로운 체제에 적합하게 바뀌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뜨거운 격려로 기업은 산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경제전쟁의 최일선에서 한으로, 변한 역량을 발휘하 하는 시점에 서 있다.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우리가 싸워야 할 외국의 우량기업들과 체력을 비교해자면, 마치 국민학생이 대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것과 같이 힘에 부치는 상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금상사 등, 우리 그룹의 공개된 회사들은 이미 대부분의 주식을 일반국민들과 우리 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느냐, 사부신을 가질 수 있느냐, 전 국민이 경리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기업인들은 이런 국민적 일반원, 사회적 성원만 있으면 더욱 신바람이 나고 힘이 솟아서 기필코 세계의 우량기업들과 싸워 이기고, 우리나라를 상위국에 진입한국으로 발전시켜 수 있음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단 한해가 법있으나 백일 주년 주년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희망의 만발대로가 아니다. 오불전이와도 같은 위기 앞에 우리는 한길을 더 나아갔을 뿐이다.

이 위기는 여기 한 제조, 여기 한 기업, 여기 한 분야에만 닥쳐오고 있지 않다. 총체적인 위기로서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할 방법은 오직 한길, 정치한, 기업인, 교육자, 언론자… 사회 각계각층,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자정 회장 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럭키금성은 경제난국을 해결하고 희망의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기업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럭키금성의 실체변혁」광고시리즈를 통해 저희들의 경영혁신 대장정을 소개해왔습니다. 21세기 이 나라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각자의 이상과 목표를 뚜렷이 하고 미래를 내다봄에 오는 두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광고시리즈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